에너지경제연구원 집단에너지연구실

제23-44호

# 주간 집단에너지 동향

Weekly News Update on CHP/DHC

2023.11.15. (수) 2023. 11. 13.(월) 17:00 기준




집단에너지정보넷
www.kienergy.net

이미지를 클릭하면
집단에너지정보넷으로 이동합니다.

# 1. 국내 주요 단신

## ▌산업부2차관, 민간발전·집단에너지 업계와 간담회 개최(전기신문, 2023.11.7.)[1)]

### ▶ 겨울철 차질 없는 에너지공급 당부

- 지난 7일, 산업부 2차관은 주요 민간발전 및 열병합발전 사업자들과 함께하는 소통간담회를 열어 전력분야 현안과 관련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다가오는 겨울철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당부함.
  - 이번 간담회에는 석탄, LNG, 열병합 등 주요 에너지 분야에서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민간기업 6개사(SK E&S, 포스코인터내셔널, 강릉에코파워, 고성그린파워, GS E&R, 한화에너지)가 참석함.
  - 민간발전사들은 지난해 기준 석탄발전량의 16.5%, LNG발전량의 67.4%를 차지하는 등 국가 전체 전력 수급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함,
- 특히 주요 LNG 발전사들은 최근 이스라엘-하마스 사태 등에도 불구하고 발전용 LNG 도입 및 겨울철 필요 물량도 차질 없이 도입하여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함.
- 정부와 민간발전업계는 첨단산업 투자 확대 등 전력수급 여건의 변화에 따라 향후 안정적 전력공급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다짐.

## ▌'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 활성화 협의회' 발족(투데이에너지, 2023.11.7.)[2)]

### ▶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반영될 사항 논의 예정

- 지난 7일,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는 내년부터 시행될 통합발전소(VPP) 사업자 제도의 본격 도입에 따른 분산에너지 산업 발전을 목표로 '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 활성화 협의회'를 발족함.
  - 협의회에는 해줌, 한국에너지공단,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, 한국전력공사, 한국전력거래소, LS일렉트릭, 레플러스, 그리드위즈 등 총 8개 기업이 참여함.
- 협의회는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령, 시행규칙에 반영되어야할 사항을 논의하고 특별법 시행과 연계해 지자체 참여 등 협의회 구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임.
  - 논의사항으로는 전력도매시장 보상체계 확립,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VPP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 마련, VPP 사업자 등록제도 운영 및 개선사항 등이 언급됨.

1) 전기신문
2) 투데이에너지

## 대전열병합발전, 빅데이터 활용 에너지관리 플랫폼 고도화(EPJ, 2023.11.9.)[3]

### 중부발전 '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' 추진

- 대전산업단지 및 대전지역 4만 5천여세대에 지역난방과 전기를 공급하는 대전열병합발전은 최근 한국중부발전과 스마트공장 고도화 기술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함.
- 대전열병합발전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이전 정상운전 정보를 토대로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기기 특성과 데이터 상관관계를 도출하는 경험적 학습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힘.
- 또한, 플랜트 센서 이상과 잠재적 기기 이상, 운영상 잘못된 프로세스로 인한 이상상태 등 다양한 잠재 고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상태기반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임.
- 이를 통해 효율적인 유지보수에 따른 운영비용 절감과 플랜트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.

## 한국형 가스터빈 '김포열병합'…사업비 1천억원 증액(아시아투데이, 2023.11.7.)[4]

### LNG 직도입 배관망 건설로 사업비 상승

- 국산화 가스터빈이 적용된 김포열병합발전소의 사업비가 LNG 직도입 배관망 건설 영향에 따라 1천억원 가량 증가함.
  - 사업비 중 특히 시공비가 2,367억원에서 3,944억원으로(△1,577억원) 늘었으며 이 밖에 △설계용역비(192억원→211억원) △사업주제경비(213억원→276억원) △건설이자(267억원→307억원) 등이 증액됨.
- 한국서부발전은 올해 7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김포열병합발전의 내년 종합준공을 위해 경제성 등을 고려해 심혈을 기울여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임.

3) EPJ
4) 아시아투데이

# 1. 국내 주요 단신

## ▌열수송 분야 AIoT 기술로 지하 안전 업그레이드(이투뉴스, 2023.11.9.)[5)]

### ▶ 한난-LGU+, 열수송시설 안전관리체계 고도화솔루션 공동개발

- 지난 7일, 한난과 LG유플러스는 AIoT(인공지능+사물인터넷)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열수송시설 안전관리체계 고도화 솔루션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함.
- 양사는 협약을 통해 ▶AIoT 센싱기술을 적용한 열수송시설 안전제품 개발 ▶열수송관의 진동 및 기울기 감지 기술 ▶빅데이터 분석기술을 접목한 예지보전 모니터링 알고리즘 등 기술 발굴 및 개발과 정보를 교류하기로 함.

5) 이투뉴스

# WEEKLY NEWS UPDATE ON CHP/DHC